

“온 주민이 함께 꿈꾸는 삼시도의 새로운 미래, 한국섬진흥원과 만들어가겠습니다”

섬 특성화 사업 시범 사업지
보령 삼시도

강동철
마을발전협의회회장 인터뷰

삼시도 주민들의 섬을 향한 애정은 각별합니다. 한국섬진흥원의 섬 특성화 사업 시범 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섬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열정적으로 미래를 그려가고 있었는데요. 강동철 마을발전협의회장은 삼시도가 작지만 전경이 빼어나게 아름다우며 다양한 가능성을 품은 곳이라고 연신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주민들이 그리는 삼시도의 미래, 어떤 모습인지 만나볼까요?



드론으로 바라본 삼시도 전경

섬의 발전 및 소득 증대를 위한 해답,
관광 인프라에서 찾다

양질의 콘텐츠와 먹거리 확보 통해
‘더 머무르고 싶은 섬’ 만든다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충남 보령 삼시도에서 살고 있는 강동철이라고 합니다. 6년간 마을 이장을 지냈으며, 최근 진행된 섬 특성화 사업 관련하여 마을발전협의회장을 맡게 되어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Q. 말씀하신 섬 특성화 사업이 삼시도에서 첫 스타트를 끊게 됐습니다. 주민 분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A.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문제의식을 해소할 수 있으리란 생각에 매우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삼시도는 아름다울 뿐 아니라 많은 가능성을 가진 섬이지만 즐길 거리가 별로 없어 진정한 관광지로 거듭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요. 우리가 가진 자원을 활용해 섬의 발전을 이끌고 주민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관광 기반을 제대로 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섬 특성화 사업을 통해 고민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삼시도가 각광받는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 삼시도를 더 머무르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바닷물이 빠졌을 때는 그래도 바지락 캐기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데,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엔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시 머무르다 가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적어도 1박 2일로 여행할 수 있도록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식당이 많지 않다 보니 관광객 분들의 선택지가 좁을 수밖에 없는데 지역만의 음식이 여행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만큼 풍성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일도 꼭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현재 마을버스가 있지만 특정 시간대에만 운영되기 때문에 관광 열차가 생긴다면 이동상의 편의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